KS 직행, 마지막 경기서 결정난다

KIA, kt에 2-20 참패 2위 두산과 0.5게임차…남은 2경기 무조건 이겨야 자력 우승

'호랑이 군단'의 카운트 다운은 끝나지 않았다. 정규시즌 최종전인 3일 우승팀이 가려진다.

KIA 타이거즈가 1일 수원 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시즌 14차전에서 2-20으로 졌다. 또 이날 한화 이글스와 맞붙은 2위 두산 베어스가 6-4로 이기면서 매직 넘버는 '2'에서 멈췄다.

KIA는 2·3일 kt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해야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 KIA가 1승1패를 할 경우에는 두산이 3일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패해야만 1위를 확정할 수 있다. KIA가 2패로 시즌을 마무리하면 우승은 두산의 차지가 된다.

2회 만루 위기 상황에서 KIA 선발 임기영과 kt 선발 로치의 표정이 엇갈리면서 승패가 갈렸다.

KIA가 2회초 선두타자 최형우의 안타로 공격의 물꼬를 연 뒤 나지완과 안치홍의 연속 볼넷으로 만루를 채웠다. 이범호의 유격수 땅볼 때 3루에 있던 최형우가 홈에 들어오면서 KIA가 선취점을 만들었다. 2루에서 안치홍이 아웃은 됐지만 1사 1·3루, 그러나 김민식과 김선빈이 내야 땅볼을 기록하면서 추가 점수 없이 이닝이 종료됐다.

대량 득점의 기회를 놓친 KIA가 2회말 무사 만루의 위기에 몰렸다.

선발 임기영이 유한준-이해창 -오태곤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며 무사 만루가 됐다. 그리고 박기혁의 타구가 좌측 선상을 타고 흐르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정현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1-3이 됐다.

임기영은 이후 4회 오태곤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는 등 3이닝 9피안타(1피홈런) 3탈삼진 5실점을 하며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반면 버나디나의 번트 안타로 3회 선두타자를 내보냈던 로치는 서동욱의 병살타로 투아웃을 만든 뒤, 김주찬의 2루타와 최형우의 볼넷으로 자초한 2사 1·2루에서는 나지완의 유격수 땅볼로 위기를 넘겼다. 이후 로치의 삼자범퇴 이닝이 계속됐다. 7회 1사에서는 이범호를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대타 백용환을 병살타로 돌려세우면서 7이닝 3피안타 4볼넷 3탈삼진 1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올 시즌 '불운'에 울었던 로치는 이날 승리로 평균자책점 4.69, 4승 15패로 2017시즌을 마무리했다.

선발 이후 불펜 싸움에서도 KIA는 자존심을 구겼다. 임기영에 이어 등판한 김윤동과 이민우가 5회까지는 막았지만 심동섭-홍건희-남재현-박진태가 모두 실점을 했다. 특히 남재현과 박진태가 등판한 7회에는 무려 12실점을 하면서 kt의 창단 후 첫 한 이닝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만들어줬다. 이날 기록된 20점 역시 kt의 창단 후 최다 득점이다.

KIA는 2일과 3일 양현종과 헥터를 내세워 우승과 동반 20승에 도전한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kt 위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타자 안치홍. 〈KIA 타이거즈 제공〉

지난 3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슈카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제1차 쇼트트랙 월드컵대회 여자 500m에서 최민정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최민정은 1,500m에 이어 5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최민정 쇼트트랙 월드컵 金 2개 싹쓸이 '평창 맑음'

1500m·500m 우승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제1차 쇼트트랙 월드컵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싹쓸이했다.

최민정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푸슈카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여자 500m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먼저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 33초 025의 기록으로 캐나다 킴 부탱, 호주 디에나 로켓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그는 13바퀴를 도는 1,500m 결승 경기 초반 뒤에서 눈치를 보다가 6바퀴를 남기고 속력을 올리기 시작했다.

3바퀴를 남가고 2위로 올라섰고, 마지막 바퀴 곡선주로에서 아웃코스로 빠져 선두를 달리던 부탱을 극적으로 역전했다.

최민정은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지독한 불운에 시달리며 종합 1위 자리를 영국 엘리스 크리스티에게 내줬다.

하지만 이번 대회 첫 경기 결승에서 보기 좋게 복수전에 성공했다. 크리스티는 4위에 그쳤다.

결승에 함께 출전한 심석희(한국체대)는 2위로 통과했지만 실격처리됐다.

최민정은 이어진 여자 500m에서도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그는 준결승 2조에서 심석희에 이어 2위를 기록해 결승에 올랐다.

최민정은 결승무대에서 스타트를 3위로 끊었는데, 2바퀴를 남기고 속력을 올렸다.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 2위 아리안나 폰타나(이탈리아)를 여유롭게 제치며 43초 64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심석희는 3위에 올랐다.

세대교체를 한 남자대표팀도 금빛 레이스를 펼쳤다. 임효준(한국체대)은 남자 1,500m 결승에 올라 2분 14초 53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황대헌(부흥고), 서이라(화성시청)와 함께 1,500m 결승에 나란히 진출했는데, 결승선 세 바퀴 전까지 중위권에서 기회를 노렸다.

그는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치고 올라갔고, 그대로 골인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평창올림픽 출전권은 총 네 차례 쇼트트랙 월드컵대회 결과를 통해 각 나라에 배분된다. 남녀 500m 각 32장, 남녀 1,000m와 1,500m 36장, 계주 8장의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종목별로 국가당 최대 3명씩 출전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기태 감독 "수원만 오면 날씨가 이러네"

덕아웃 톡톡

▲수원 오면 이러네 = KIA에게 수원은 비의 도시다. 올 시즌 KIA는 정규시즌에 예정됐던 kt와의 원정 세 경기를 우천으로 치르지 못했다. 비로 미뤄진 세 경기는 1일부터 3일까지 시즌 마지막 3연전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1일에도 수원에는 비가 내렸다. 원정팀 훈련 시간에 맞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점점 굵어지면서 KIA 덕아웃의 관심사는 비가 됐다. 김기태 감독도 "수원 오면 (날씨가) 이러네"라면서 하늘을 올려봤다. 그러나 경기 개시시간에 맞춰 비가 가늘어지면서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대신 경기장 정비 작업으로 예정됐던 2시보다 2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다.

▲3시 15분 매진입니다 = 가을비도 야구팬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다. KIA와 kt의 시즌 14차전이 열린 1일 위즈 파크에 2만2000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매진이 기록됐다. 이날 정오부터 수원에는 제법 굵은 가을비가 내렸지만 빗속에 야구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오후 3시 15분 2만2000석이 다 팔려나갔다. kt의 시즌 두 번째이자, 역대 9번째 매진이다. 앞선 매진은 7월 8일 KIA와의 경기 때 이뤄졌다.

▲제가 선배입니다 = 1일 '예비역' 문경찬이 1군에 합류했다. 상무에서 군복무를 했던 문경찬은 얼마 전 전역을 하고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훈련을 해왔다.

엔트리 등록이 아닌 선수단 합류지만 문경찬은 "신인이 된 기분이다. 좋은 기억이 있는 곳으로 와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대졸 출신인 문경찬은 2015년 KIA에 입단한 뒤 이해 4월 5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이날 문경찬은 4-1 경기의 승리투수가 되면서 데뷔전 선발승을 기록했었다. 문경찬이 전역 후 처음 찾은 1군 경기장이 바로 첫 승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문경찬은 또 92 동갑내기 이민우를 보고 "제가 (데뷔전 선발승) 선배입니다"라며 웃었다.

팔꿈치 수술과 군복무로 데뷔가 늦어졌던 입단 동기 이민우는 지난 9월 14일 롯데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프로 첫 무대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날 경기가 11-2,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민우도 데뷔전 선발승의 주인공이 됐었다.

/수원=김여울기자 wool@

KIA 팻딘, 광주기자단 선정 '9월 MVP'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팻딘이 광주기자단이 선정하고 밝은안과21병원이 시상하는 9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팻딘은 9월 5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34이닝 동안 2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2.38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1패)을 기록했다. 상금은 100만원이며, 팻딘은 상금 중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투수 홍건희와 외야수 김호령은 구단 후원업체인 Kysco(키스코)가 시상하는 '이달의 감독상' 주인공이 됐다.

홍건희는 9월 4경기에 구원 등판해 11.2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솎아내는 등 평균자책점 2.31의 피칭으로 1승을 기록했다. 김호령은 9월 23경기에 출전해 42타수 14안타(1홈런) 7타점 8득점 2도루 타율 0.333의 공격력을 선보였다. 특히 외야수들의 부상 속에 중견수로 외야 수비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감독상은 투수·야수 각 1명에게 돌아가며, 김기태 감독이 직접 선정한다. 상금은 각각 50만원이다. 또 내야수 이범호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시상하는 9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이범호는 9월 22경기에 나와 78타수 22안타(7홈런) 23타점, 13득점 타율 0.282의 활약을 했다. 시상금은 100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

미 프로야구 가을야구 대진 확정

4일 미네소타-양키스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가을야구 대진이 확정됐다.

밀워키 브루어스는 1일(이하 한국시간) 2017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에서 6-7로 역전패했다.

경기 전까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2위인 콜로라도 로키스에 2경기 차로 뒤져있던 3위 밀워키는 이날 패배로 탈락하고 콜로라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을 확정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은 4일 미네소타 트윈스와 뉴욕 양키스의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경기(단판)로 시작한다. 다음 날에는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가 펼쳐진다.

이후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팀은 6일부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디비전시리즈(5전3선승제)를 치른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이날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홈경기에서 6-2로 승리, 2년 연속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정상에 등극했다. 보스턴과 휴스턴은 역시 6일부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에 돌입한다.

콜로라도와 애리조나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승자는 7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시카고 컵스는 워싱턴 내셔널스와 7일부터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 돌입한다.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각각 14일, 15일부터 7전4선승제로 열린다. 여기에서 승리한 각 리그의 최종 승자는 25일부터 대망의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를 치른다. /연합뉴스